

## 의상 전문잡지를 통해 본 해체적 의상디자인

이순자<sup>1)</sup> · 권미정<sup>2)</sup> · 김주현<sup>1)</sup>

1) 영남대학교 의류학과

2) 밀양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 A Study on Deconstructional Fashion Design Through Fashion Magazine

Soon-Ja Lee<sup>1)</sup>, Mie-Jung Kwon<sup>2)</sup> and Ju-Hyun Kim<sup>1)</sup>

1) Dept. of Clothing & Textiles, Yeungnam University, Kyongsan, KyungBuk

2) Dept. of Fashion Design, Mirang University, Mirang, KyungNam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deconstruction, which currently had a great deal of influence on fashion, was actually accepted in view of fashion form or material. In order to track the tendency of deconstructional fashion, an attempt to find out what deconstructional methods were used in fashion design for each formative element was made by looking into earlier studies. Then an analysis was made over the recent fashion magazines. As a result of analyzing four fashion magazines,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was found to be the use of seethrough cloth. In addition, unsymmetrical form also was immensely used. The next most frequently appeared form was layering, followed by slash or making a hole, lingerie look, padded cloth, indeterminate form, wrinkled cloth and patchworked cloth in the order named. The dominant layering style, the most widely used deconstructional fashion, was that inner cloth could be seen through outer seethrough cloth. The most frequently employed deconstructional cloth was seethrough cloth. Rather than complete seethrough cloth, the shape of lace, net or pattern was employed largely, in which the body could be partially hidden. The most largely used deconstructional method was a slash or making a hole. Most slashes appeared on the front part of the body, to which seethrough stuff was attached in many cases. Based on the above mentional finding, 10 kinds of deconstructional design were proposed for each method.

**Key words:** deconstruction, seethrough cloth, unsymmetrical form, slash or making a hole, layering

## 1. 서 론

해체주의는 서양 철학의 전통적인 이분법적 논리에 대항하여 모든 절대적 의미의 안정된 근원을 교란시키고 해석 불가능함을 시사하는 논리로, 현대의 철학, 문학, 건축, 예술 등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지성사라고 할 수 있다(김주영, 1995).

복식이 당시의 생활상과 사회상을 직접 반영하며, 각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예술 속에서 인류의 정신활동의 발자취를 나타내는 가장 시각적인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대 복식 역시 현대 중요 사상체계 중 하나인 해체주의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윤소정, 1995).

현대 복식과 해체주의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은 1993년 손일호(1993)의 「현대 복식의 해체적 성향」으로, 이를 시발(始發)로 이후 각종 논문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오고 있다.

선행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경은주(1995), 윤소정(1995)은

부분 요소별 해체적 의상디자인을 직접 제시하기도 하였고, 정은주(1995)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이용하여 해체 전·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여 해체적 복식 디자인을 전개시키는 등, 방법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상 디자인은 해체주의의 영향을 어느정도 받고 있는지, 또 어떠한 표현 형태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복식에서 새로운 조류로 등장하고 있는 해체주의 복식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조형요소별로 해체적 표현방식을 분류한 다음, 최근에 반영되고 있는 해체적 표현에 대하여 형태와 소재 측면에서 의상잡지 분석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각 표현 형태별 해체적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체적 표현 형태는 간단히 설명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광범위한 의상들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복식의 스타일 및 이미지, 디자인 요소를 배치, 결합시키는 데서 일어나는 해체적 현상, 의상의 착용에서 나타나는 해체적 표현까지도 모두 포함되므로 그 범위를 정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의상형태의 범위를 의복의 조형요소인 형태와 소재라는 단일 요소의 특징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해체주의 이론

1966년 10월 미국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대학에서 열렸던 '비평의 언어와 인문 과학(The Languages of Criticism in the Science of Man)'이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움에서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인문학의 예술 행위에 있어서의 구조와 기호, 그리고 유희(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구조주의 이론은 물론, 플라톤(Platon) 이래의 서구 형이상학의 근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해체주의를 등장시켰다. 소위 '해체주의(Deconstruction)' 시대의 도래를 선언한 것이다(정용교, 1991).

이렇듯 해체주의는 1960년대 후반 Jacques Derrida에 의해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 서구의 사상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최근의 비평 이론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철학 및 문학 이론이다. 그리고 1970년대 초반 이래로 인문 과학 분야, 특히 문학 비평과 사회심리학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끼쳤으며 이제는 역사학, 신학, 법학, 예술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윤소정, 1995).

데리다는 '무엇이 해체주의이다.'라고 말하는 대신 '해체주의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은 해체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김형호, 1993). 여기서 데리다는 유일한 진리란 있을 수 없고 하나의 진리를 고집하는 것은 독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진리의 현존을 믿어왔던 서양철학 사상의 전통을 그 근원부터 해체하는 것이며, 인간의 인식과 지식의 절대적인 기준을 불가능하며 불확실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데리다의 해체이론은 닫힌 체계에 대한 저항이며, 동시에 불안정과 무질서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며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하는 지적 탐색인 것이다(김성곤, 1989).

해체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특성으로는 '인용', '텍스트와 글쓰기', '차연', '보충', '산중', '혼적', '현존과 부재', '상호텍스트성' 등을 들 수 있다(김지연, 1996). 이들 중 디자인 개념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체주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연** : 차연은 타자(他者)와의 공간적 부분을 나타내는 차이(差異, difference)와 시간적 한계를 나타내는 지연(遲延, delay)에 의해 표시되어 유보의 시간성이 포함된 합성어로서, 어떤 기호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기호와 다른 기호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적 지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서강목, 1990). 즉, 의미는 기호가 나타난 그 순간에 바로 존재하지 않는다. 의미(뜻)는 어떤 의미에서 기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기호가 본질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지연되고 차이지워질 수 밖에 없는 시간성을 내포하는 이상, 말과 글은 모두 현존이 결핍된 의미화의 과정일 따름이며(김주영, 1995), 그 의미라는 것은 본질과 영원히 차이를 갖게 되며 끝없이 유보하게

되고, 끊임없는 현전(現傳)과 부재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김성곤, 1989).

**상호텍스트성** : 이분법에 대항하는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이란 텍스트(text)가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출발하며, 텍스트의 자율성을 거부하고 언술행위의 형태들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이론을 따른 것이다(김원갑, 1991). 즉, 데리다는 모든 이항대립적 요소들이 서로 대체될 수 있고 보충될 수 있는 '상호보존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토대로 그 두 요소 사이의 자유로운 치환을 허용하는 것으로부터 해체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김성곤, 1989).

**불확정성** : 텍스트간의 그리고 텍스트 내부의 각 요소들 사이에서 상호간에 '차연'으로 존재하는 데리다의 텍스트 즉, 해체된 텍스트는 그 자체의 불안정성과 비확정성으로 인해 의미의 무한한 '산중(散種, dissemination)'을 향하여 열려진다(정용교, 1991). 데리다는 의미란 주관에서 비롯된 허구적 구조물일 뿐이며, 불확정성이란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어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성곤, 1989). 결국 불완전성이나 비결정성의 한계로 인한 의미의 모호성을 인정하고 그 의미들을 산중시키는 것이 해체철학의 개념이다(조말희, 1996).

**Dis·De 탈현상** : 해체는 수학적 세계관의 출발인 이성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종래의 기하학적 어휘의 완전성에 대한 부정으로서 탈현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탈현상으로 나타나는 다원주의는 해체주의라는 대항문화를 바탕으로 탈구성, 전위, 무질서, 파괴, 파편화, 형태의 왜곡, 단편화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조말희, 1996), 이는 동일성, 전체성을 만들어내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해체의 개념이다(정용교, 1991).

### 2.2.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데리다가 말하는 해체주의의 특징적인 개념들로 현대 복식의 틀을 설명할 수 있으며, 복식의 양식적인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복식의 해체적 디자인 형태는 관련 선행 학술 논문들을 토대로 분석해 보았다.

먼저, 각 논문들의 분석을 비교, 대조하기 용이하도록, 선행 학술 논문들 중, '데리다의 해체주의' 입장에서 분석한 논문들을 사용하였다.

조사 논문은 손일호(1993), 김주영(1995), 경은주(1995), 조말희(1996), 김지연(1996), 김혜정(1997)의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해체적 표현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데리다의 해체전략인 차연과 텍스트성(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탈현상(Dis, De 탈현상)이었다. 따라서 해체의 기본개념인 차연,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Dis·De의 탈현상을 가지고 복식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Table 1.** Derrida's deconstructional strategy, fashion and cloth

Deconstruction strategy	Deconstructional design form & material
Difference	used style, recyclable design, or space time free form etc
Mutual text	layered look, lingerie look, seethrough cloth, slash or making a hole, space time-free form, natural design, neutial or unisex form, de-T.P.O. design, disharmonious-design, etc.
Indetermination	anti-gravity or unsymmetrical form, layered look, indeterminate form, natural design, etc.
Dis/De-Phenomenon	anti-gravity or unsymmetrical form, layered look, destructive construction, indeterminate form, a bduction of the coat and pants's notions, slash or making a hole, space time-free form, de-T.P.O. design, disharmonious coordination, etc.

선행연구에서 밝힌 해체적 의상의 형태 및 소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차연** : 복식에서의 차연은 먼저, 과거-현재-미래의 복식을 결합시키기도 하고 복고풍의 형식으로 과거의 복식을 현대의 양식으로 재조명한 시간과 공간의 차연으로 나타난다(김지연, 1996). 이때 복식의 모티브에서만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양식적 차용 역시 무제한적이다. 고대와 중세의 건축양식의 모티브와 아수파, 입체파, 추상표현주의, 팝아트, 옵아트, 미니멀아트 등의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양식사적 특징들을 혼성모방의 형식으로 차용한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에 대한 향수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창조될 수 없는 작품의 한계에, 과거에 만들어진 그리고 시도되어진 것들을 조합하여 오늘에 전혀 새롭게 많은 새로움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해체적 작업인 것이다(손일호, 1993).

또, 복식디자인에 있어서는 '복식 상징성의 계층개념'을 해체시켜 상류문화와 하류문화가 서로 차이적 혼적으로서 대립을 깨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의 예로서는 의식적으로 주도된 스트리트 패션(Street Fashion)의 등장과 펑크패션(Punk Fashion), 푸어 모던(Poor Mordern), 프리미티브 포브르(Primitive Pauvre) 등의 빈곤의 미학을 들 수 있다(정은주, 1995).

**상호텍스트성** : 상호텍스트성에 의하여 열린 사고를 지향하고 일원화, 획일화됨을 거부하며 하나의 개체를 해체시키는 것이다(조말희, 1996). 데리다의 상호텍스트성은 복식에서는 남성대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 아이템, 예술, T.P.O.에 적합한 착장 방법을 해체시키고 상호텍스트를 병행이용함으로써, 기존 사회규범으로서의 이분법적 표현 방법을 무너뜨리고, 이성적, 합리적인 면보다는 감각적 자극과 다양한 즐거움을 추구한다(김주영, 1995).

**불확정성** : 모든 체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한 데리다에 의하면, 불확정성이란 체계의 불확정성을 제시한다. 불확정적 세계관을 지배하는 해체주의 복식은 일정한 척도와 기준이 존재치 않으며, 무한히 개방된 공간 구성에 의한 유연성을 지향한다.

불확정적 의복의 근본에는 일본 전통 복식의 영향이 있다. 일본 전통 복식의 착장법은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복식의 착용으로 완결되는 잠재적인 형태, 오비, 직선적인 미, 레이어링

현상 등으로 인체 위에 착용된 후 그 진정한 형태를 논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재의 선택과 인체에 입혀지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형을 창조하는 직선적인 재단법은, 2차원적 소재를 가지고 3차원의 인체에 착용함으로써 완결된 미를 가지게 된다. 이는 결국 인체에 의해 다시 유동적인 선으로 재창조되고, 신체와 의복간의 공간을 강조하여 불확정적, 우연적 미(美)를 이룬다(경은주, 1995).

**Dis·De 탈현상** : 해체주의에서 탈피의 개념을 갖는 'Dis·De'의 개념이 복식에서 탈중심, 탈구성, 위치전환으로서의 전위, 일정규칙이나 룰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무질서한 디자인 원리를 제시한다(경은주, 1995). 즉, 구성선에서 떨어져나가 새로운 형을 이루거나 이에 조형요소를 무시하는 경우와 기존의 복식의 개념을 해체시키는 디자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조말희, 1996).

복식에 나타난 탈구성적 경향은 형태의 왜곡과 과장의 기존 구성방식의 탈피 등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열린 사고를 반영한다. 이와 달리, 탈중심의 논리는 중력에 대항하여 기울어지고 여러각도를 지닌 수직·수평선을 탈피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복식의 탈중심을 나타내는 특성은 앞중심이 기울어지고, 밑단이 여러 각도로 구성되고, 다이어트, 옆솔기, 지퍼, 단추 등 모든 것이 중력에 대항한 기울어진 형태를 이루어 수직·수평선을 탈피한 형태이다(김지연, 1996).

또 불연속적 표현을 통한 탈현상이 있다. 전통적 디자인에서는 일전에 구축해왔던 이미지로부터 변형적이거나 연속적인 전개과정을 거쳐 진행하며, 연속적인 개념 속에 내포된 일체성을 배제하고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오브제화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형태적인 조각을 통해 동질적인 틀의 혼합, 중첩, 왜곡, 용해, 반복, 우연, 삽입으로 분류되어진다(이지윤, 1994). 이 개념이 복식에 적용된 불연속적 표현으로서의 중첩은, 형태의 착장요소로서 여러 층이 겹쳐입혀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혼합, 중첩, 반복을 통해 불연속적 구성을 보인다.

또다른 탈현상적 전개방법이 이접(異接)적 표현인데, 복식 형태에 있어서도 의복 구성 요소의 기능적 측면이 형식적 구성의 중첩과 병치로서, 본래의 기능적 측면과 형태 사이에서 전통의 형식을 거부함으로써 분석적인 창조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김혜정, 1997).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범위

연구에 사용될 '해체적 표현 형태'의 범위를 조형요소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형태적 측면에서는 上, 下衣 개념이 전위된 형태, 부정형(착용자의 체형과 사이즈를 무시하여 직선적인 재단법을 이용한 스트레이트 스타일), 속옷의 겹옷화(란제리 룩, 브래지어 룩, 코르셋 룩), 겹쳐입는 형태(혼합, 중첩, 반복의 형태), 비대칭 형태(중력에 대해 대항한 형태), 의복 구성의 파괴(기존 가치에서의 형식적, 구조적 파괴)의 6가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소재적 측면에서는, 소재 자체가 해체적인 것으로 시스루 소재(비침 소재)와 패딩 소재, 폐품 소재의 3개를 선정하였고, 소재의 표현 방법이 해체적인 것으로 슬래쉬·오리기를 통한 구멍내기, 울퉁기(프린팅 포함), 패치워크(짜집기), 구기거나 주름 잡기의 4가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 3.2. 조사 대상

최근 패션에 대하여는 '96 F/W~'98 S/S의 "Fashion Show-selected by trend"에 수록된 4개 시즌의 3232개의 사진이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Fashion Show-selected by trend"는 전세계의 패션쇼를 수록한 의상잡지 중, 주요 Fashion Show를 모두 다룬 Fashion Show 전문 잡지로 우리나라에서 시즌별로 구입이 용이하고, 그 인지도가 높으며, 한 시즌마다 제시되는 의상의 수가 1000점으로 다른 의상잡지에 비해 많다. 특히, 수록된 1000개의 의상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 사진이 제시되어 있어, 의상 형태의 파악이 용이하므로 조사대상으로 "Fashion Show-selected by trend" 잡지를 선택하였다.

#### 3.3 자료 처리

분석 방법은 잡지에 실린 의상 중, 해체적 의상 형태의 빈도를 해체적 표현 형태별로 구하여, 해체적 의상디자인의 실태와 경향을 분석하였다.

빈도조사는 여성복에 준하여 행하였으며, 디자인 선택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3명의 의상디자인 전공자(의상관련 전공 대학원생) 중 2명 이상이 의견 일치된 것만을 선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 4. 결과 및 고찰

#### 4.1. 의상 전문 잡지를 통해본 해체적 의상

최근의 패션 경향은 과연 해체적 표현 방법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상 전문 잡지를 분석해 보았다.

**의복 형태에 있어서 해체적 표현** : 형태적 요소에서는 비대칭적 형태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겹쳐입기, 속옷의 겹옷화 현상 순으로 많이 관찰되었다.

먼저, 형태적 측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반중력, 비대칭 형태는 147개(약 29.17%)로,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6개의 형태로 다시 나눌수 있다.

'칼라에서 어깨선까지 이루는 부분의 좌, 우 비대칭'과 '넥라인에서 소매까지 이루는 부분의 좌, 우 비대칭'의 형태가 두드러지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유행경향에 의한 것으로서, 칼라에서 어깨선까지 이루는 부분의 좌, 우 비대칭의 빈도가 높은 것은, 소매 없는 옷의 경우에 한쪽 어깨에만 의상이 걸쳐지게 하는 형태가 요즘 많은 탓이다. 소매 있는 옷의 경우는 양쪽 소매는 다 있고 한쪽 어깨에만 의상이 걸쳐지도록 한 형태 즉, 한쪽 어깨쪽이 고의로 어깨부분만 올려놓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 올려진 모양이 소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넥라인에서 소매까지 이루는 부분의 좌, 우 비대칭'의 형태로 분류되는 것이다. '넥라인에서 소매까지 이루는 부분의 좌, 우 비대칭'의 빈도가 높은 것은 소매 옷의 경우에 소매 없는 옷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쪽 어깨만 의상이 걸쳐지는 유행을 따르다보니 더불어서 한쪽은 소매가 달리고, 의상이 걸쳐지지 않은 한쪽은 소매없는 형태로 나타나 비대칭을 이루게 된다.

51개(약 10.12%)로 두번째로 많은 겹쳐입는 형태는 중첩과 반복을 통한 레이어드 형태로 나타나는데, 특히 시스루나 레이스와 같은 비침 효과가 있는 소재를 사용한 중첩(겹쳐있는 형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속옷의 겹옷화의 형태는 대다수 디자인의 가슴 부분은 브래지어 룩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속옷의 겹옷화 현상은 드레스류에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스타일은 전체적으로 슬립의 형태를 가진다. 이 역시도 가슴부분은 브래지어룩의 형태를 보인다.

의복 구성의 파괴는 의복의 구조적, 형태적 파괴는 유행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디자이너 개개인의 독특한 취향과 표현양식에 의해 창작되어지므로, 최근 의상디자인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된다고 보여진다.

부정형은 착용자의 체형과 사이즈를 무시한 형태로 직선적 재단법을 이용한 스타일로 나타난다.

상, 하의 개념의 전위는 다른 해체적 요소보다 아직은 미적 승화가 어려워서인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의복 소재에 있어서 해체적 표현** : 해체적 표현 중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스루 소재, 즉 비침소재로, 이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시 3가지로 그 형태를 나눌 수 있다.

비침 소재는 요즘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유행 경향이다. 따라서 소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S/S 시즌 뿐만 아니라 F/W 시즌에도 못지않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 '무늬없이 의상 아래의 신체기 그두 비치는 완전 비침'과 같이 완전히 비치는 시스루 의상보다는 '레이스나 그물을 사용하여 신체를 부분적으로 감춤', '무늬를 그려넣어 신체를 부분적으로 감춤'과 같이 부분적으로 가슴이나 허리아래 부분 같은 곳을 가려주는 형태의 빈도가 높다.

패딩 소재는 소재의 특성상 F/W 시즌을 중심으로 많이 나

**Table 2.** Deconstructional methods used in the recent fashion and its clothes

Formative element	Deconstructional methods	N(%)	Note	N(%)	Figure	
Form	Unsymmetrical form	147(29.17)	unsymmetrical form of the collar ~ the shoulder	59(40.0)	Fig.1	
			unsymmetrical form of the neckline ~ the sleeve	48(32.7)	Fig.2	
			unsymmetrical form of the hem line	9(12.9)	Fig.3	
			unsymmetrical form of the center line	9(6.1)	Fig.4	
			unsymmetrical form of the decorative backstitch	7(4.8)	Fig.5	
			unsymmetrical form of the waist line	5(3.4)	Fig.6	
	Layering	51(10.12)			Fig.7	
	Lingerie look	33(6.55)			Fig.8	
	Destroy of a clothing construction	16(3.17)			Fig.9	
	Indeterminate form	10(1.98)			Fig.10	
Abdication of the coat and pants's notions	0(0.00)					
Material	Deconstructional cloth	153(30.36)	complete seethrough cloth	42(27.5)	Fig.11	
			partial seethrough cloth used the lace or net	79(51.6)	Fig.12	
			partial seethrough cloth used the pattern	32(20.9)	Fig.13	
	Deconstructional methods used in cloth	Padded cloth	21(4.17)			Fig.14
		Cloth of Junk	0(0.00)			
		Slash or making a hole	52(10.32)	attach the seethrough cloth in a hole	28(53.8)	Fig.15
				don't attach the seethrough cloth in a hole	24(46.2)	Fig.16
		Fray	16(3.17)	fray in a hem or a sleeve band	11(68.8)	Fig.17
				add a cloth to fray in a dress	5(31.3)	Fig.18
		Wrinkles or pleats	4(0.79)			Fig.19
Patchwork	1(0.20)			Fig.20		
Total		504(100.0)				

타나고 있는데, 박는 모양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폐품 소재의 사용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소재에 가장 많이 사용된 해체적 표현은 소재에 슬래쉬, 오리기를 통한 구멍내기였다. 이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침천을 부착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졌다.

슬래쉬는 대부분 앞 몸판에 배치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소매나 下衣 등에 슬래쉬를 한 경우는, 앞 몸판에 배치된 경우보다 찢어진 누더기같은 느낌이 훨씬 강해서, 신체가 슬깃슬깃 노출되는 슬래쉬 자체의 특징인 스릴감이 보다 줄어 그 미적 효과(美的 效果)가 떨어진다. 또 특이한 점은, 슬래쉬 부분을 그냥 놔둔 '구멍 낸 부분에 아무 천도 부착하지 않은 경우'보다 비침천을 부착한 경우가 훨씬 압도적으로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오리기 방식의 적용은 대다수가 앞서 기술한, '형태적 측면' 고찰할 때의 '반중력·비대칭 형태' 중 '칼라에서 소매까지 이루는 부분의 좌·우 비대칭(칼라에서 어깨선까지 이루는 부분의 좌, 우 비대칭, 넥라인에서 소매까지 이루는 부분의 좌, 우 비대칭)'에서 사용되고 있다.

소재에 율푼기한 형태도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상에 사용된 소재가 구겨졌거나 의상 구성상 의복 전반에 소재가 주름이 잡히도록 한 형태를 살펴본 결과 '96F/W~'98S/S시즌에는 소재 자체가 구겨진 경우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봉제시 소재에 주름이 잡히도록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패치워크 형태는 그 경우가 한 개로 빈약하나, 그나마도 색상 배색을 통한 패치워크(짜집기)의 형태를 띠었다.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고찰할 수 있다. 먼저, 전체 3232개의 사진 중에서 해체적 표현 방법이 사용된 의상은 15.59%로 대략 전체의 약 20%에 못미쳤다. 하지만 이 수치는 해체적 스타일이나 양식, 내재적 해체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조형요소라는 한정적 요인에서 도출해낸 해체적 표현방법이 사용된 빈도를 나타낸 것이므로, 이 수치가 최근 해체주의적 표현의 수용도 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형요소별 해체적 표현 형식의 각 빈도와 디자인 특징을 보는 것은 최근의 해체적 표현방법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체 해체적 표현방법이 사용된 복식 사진 중에서, 각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형태적, 소재적 측면 양측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표현 형태는 [비침 소재]의 사용(약 30.36%)인데,



Fig. 1. '98 S/S G. Vers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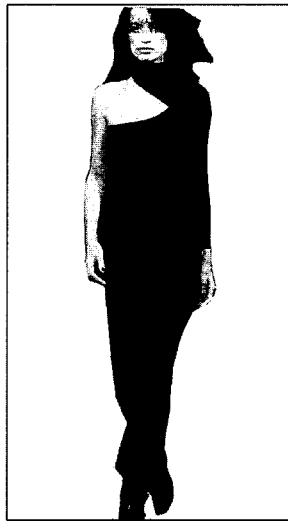


Fig. 2. '97 F/W Barbara Bui.

[비대칭 형태](약 29.17%)와 함께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동시에 [속옷의 겉옷화]와 [슬래쉬, 오리기를 통한 구멍내기]의 빈도가 그 다음으로 많다.

즉, '96 F/W~'98 S/S의 4개 시즌에서는, 어깨 한쪽이 드러나는 경향이 많은 [비대칭 형태], 여성의 속옷을 연상시키고 신체 곡선이 드러나는 [속옷의 겉옷화], 의상 아래의 신체가 비쳐보이는 [비침소재], 찢겨지거나 오려진 구멍 사이로 신체가 보이는 [슬래쉬, 오리기를 통한 구멍내기] 와 같이 여성의 신체가 드러나는 형태가 유달리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디자인에서 [울퉁기]나 [구기거나 주름잡기], [패치워크]와 같은 빈곤적 디자인보다는 어느정도 여성의 신체가 드러나는 에로틱한 디자인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로틱한 형태의 해체적 표현 형태가 더 쉽게, 더 많이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Fig. 5. '98 S/S 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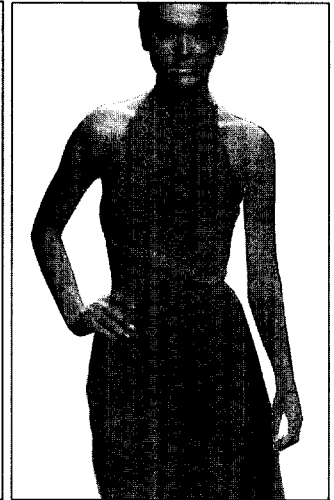


Fig. 6. '97 S/S Jacques Fath.



Fig. 7. '97 F/W Clements Ribeiro.



Fig. 8. '97 F/W Christian D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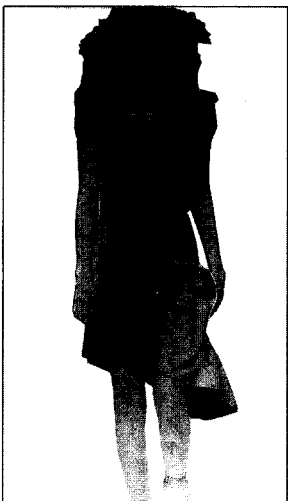


Fig. 3. '97 F/W Anna Molinari.



Fig. 4. '98 S/S Moschino.



Fig. 9. '96 F/W Comme des Garcons.



Fig. 10. '97 F/W Clements Ribeiro.



Fig. 11. '97 S/S Kriz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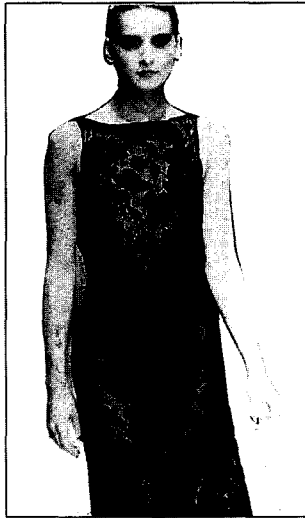


Fig. 12. '97 F/W Genny.



Fig. 15. '97 F/W Marline Sitb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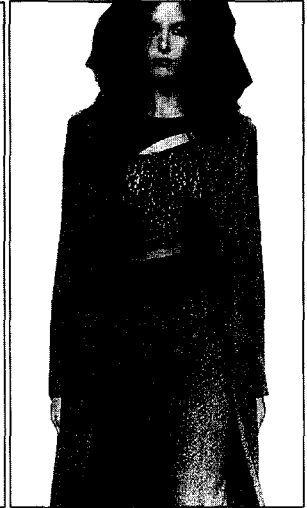


Fig. 16. '97 F/W Jean Colon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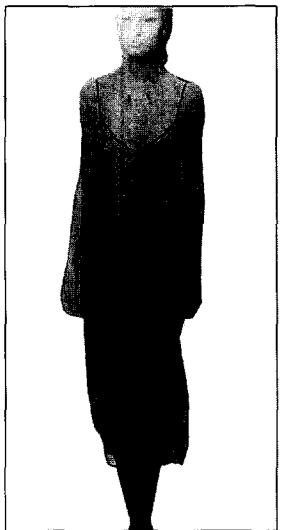


Fig. 13. '96 F/W Prada.



Fig. 14. '97 F/W Castelbajac.



Fig. 17. '98 S/S Anna Molinari.



Fig. 18. '98 S/S Alberta Ferretti.

#### 4.2. 해체적 표현별 의상디자인 제시

본 장에서는 앞의 잡지 분석을 토대로 해체적 표현 형태별로 의상을 디자인하였다. 디자인된 의상들은 기본형에서 각 해체적 특징만을 강조시킨 것으로, 기본 디자인을 Adobe Photoshop(ver. 4.0)을 이용하여 변형하였다.

해체적 표현 형태별 의상디자인은 앞선 의상잡지 분석의 '최근 의상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적 표현 형태의 경향에서 고찰한 의상디자인 형태 중에서 빈도수를 중심으로 현재 패션 흐름에 뒤쳐지지 않는 형태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그 빈도가 0인 상·하의 개념의 전위와 폐품 소재는 참고할 의상이 없는 관계로 제외키로 하였다. 또, 의복 구성의 파괴는 각 디자이너마다 디자이너의 개성으로 그 형태가 모두 틀리므로, 대표적 의상디자인을 뽑는데 무리가 있어서 대표적 디자인 제시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Fig. 19. '98 S/S Comme des Garcons.



Fig. 20. '98 S/S Jean Colonna.

나머지 빈도수가 높은 해체적 형태는 그 안에서 디자인이 너무나 광범위하여 어느것을 뽑는다는 게 자칫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그 형태 중에서 가장 많은 디자이너가 선택한 디자인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기본 디자인은 소매가 없는 검정색 쉬스 드레스(Sheath dress)를 사용한다. Sheath dress는 허리선에 솔기가 없고, 어깨에서 걸쳐지는 허리선이 들어가는 드레스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해체적 의상디자인은 아래와 같다.

**비대칭 형태** : 반중력, 비대칭의 형태로, 도련선이 수평이 되지 않고, 한쪽 어깨에만 의상이 걸쳐지는 형태이다.

**겹쳐입는 형태** : 비치는 두 개의 천을 사용하여 중첩한 것으로,

중첩의 효과를 두드러지게 제시하기 위하여 아래 천의 색상을 밝은 화이트 계열로 하였다.

**속옷의 겹옷화** : 슬립형태로 가슴부분은 브래지어 룩의 형태를 사용하였다.

**부정형** : 착용자의 체형과 사이즈를 무시한 스트레이트 스타일로 재단법을 최소화였다.

**비침 소재** : 가장 빈도수가 높았던, 레이스, 그물 등을 이용한 부분 비침 시스루, 그중에서도 꽃문양의 레이스와 그물의 혼합 소재를 사용한다.

**패딩 소재** : 의복 전반에 패딩소재(누비천)를 사용한 디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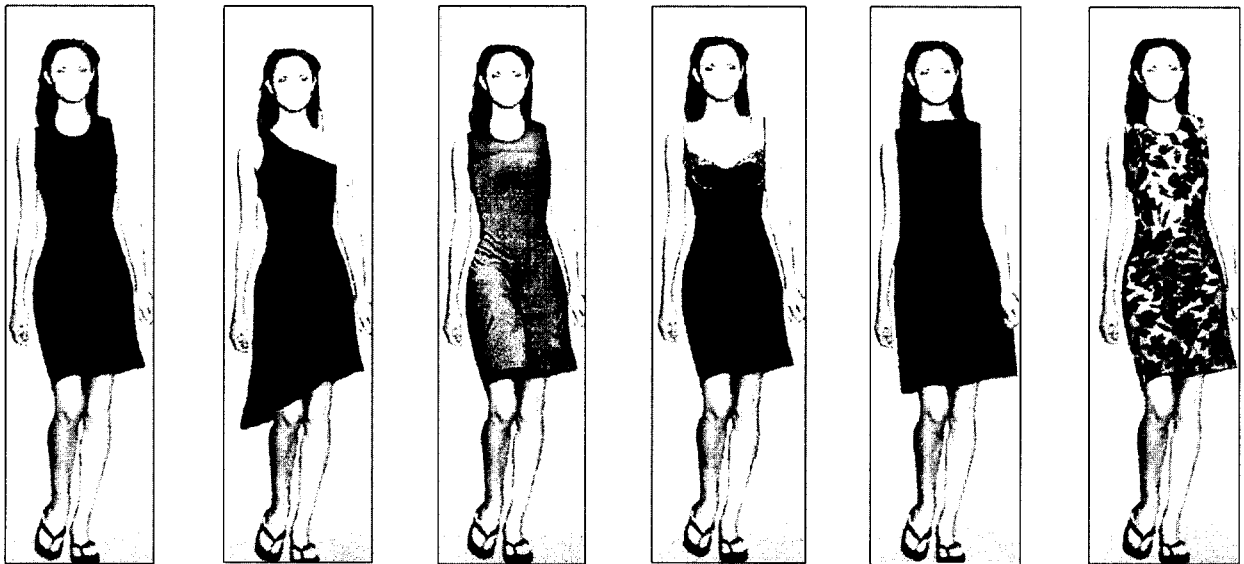


Fig. 21. Basic style. Fig. 22. Unsymmetrical form. Fig. 23. Layering. Fig. 24. Lingerie look. Fig. 25. Indeterminate form. Fig. 26. Seethrough clo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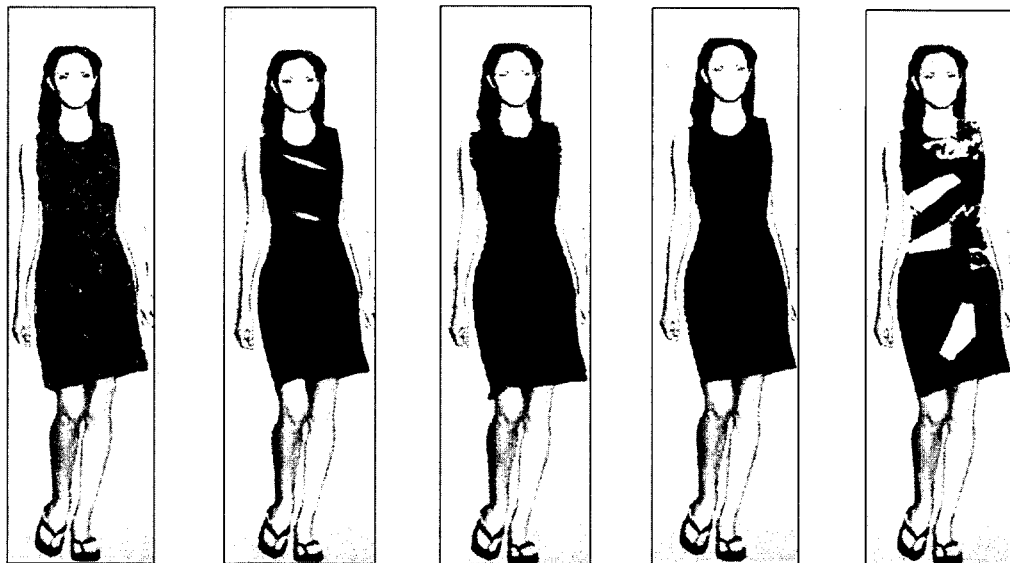


Fig. 27. Padded cloth. Fig. 28. Slash or making a hole. Fig. 29. Fray. Fig. 30. Wrinkles or pleats. Fig. 31. Patchwork.



**슬래쉬, 오리기를 통한 구멍내기** : 앞 몸판에 가슴부분과 배 부분에 슬래쉬 효과를 주었다.

**오픈기** ; 목둘레, 소매둘레, 치마단과 같은 의복의 가장자리의 오픈을 풀어놓은 디자인이다.

**구기거나 주름잡기** : 의복 전반에 주름이 지도록 봉제한 디자인이다.

**패치워크** : 서로 다른 천을 패치워크 즉, 짜집기한 디자인이다.

##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복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체주의가 복식의 형태와 소재면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최근 의상디자인에 수용되고 있는 해체적 의상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논문들을 토대로 하여 복식에 나타난 해체적 표현 방법을 조형요소별로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최근 의상잡지 분석 행하였으며,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각 표현 형태별 해체적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최근 4개 시즈의 의상잡지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의상잡지를 분석해본 결과, 조형요소별로 요약된 총 13가지의 표현 형태 중에서 [비침 소재]의 사용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이와 함께 [비대칭적 형태]의 사용도 절대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겹쳐입는 형태], [슬래쉬·오리기를 통한 구멍내기], [속옷의 겹옷화], [패딩 소재], [부정형], [구기거나 주름잡기], [패치워크]의 순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해체적 의복 형태인 [겹쳐입는 형태]는 [비침 소재]의 사용을 통해 안의 소재가 겉에서 드러나 보이게 하는 형식이 많았다.

가장 많이 사용된 해체적 소재는 [비침 소재]로, 완전 비침 소재보다는 인체가 감춰지는 레이스, 그물, 문양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다.

소재에 가장 많이 사용된 해체적 표현은 [슬래쉬·오리기를 통한 구멍내기]였다. 대부분의 슬래쉬는 앞 몸판에 배치되어 있고, 비침천을 부착한 경우가 많았다. [겹쳐입는 형태]에는 [비침 소재]의 사용을 통한 안의 소재가 겉에서 드러나 보이게 하는 형식이 많았고, [비침 소재]로는 완전 비침 소재보다, 인체가 감춰지는 레이스, 그물, 문양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해체적 표현 형태에 대한 선정이 가시적인 소재

와 형태에만 국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올바른 해체주의 이론의 복식의 적용 현황을 보려면 그 범위가 광범하겠지만, 사상적 측면과 형태적 측면 모두를 포함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의 해체적 표현의 수용 경향을 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극변하는 패션의 흐름 속에서 해체적 표현에 대한 인식과 경향은 해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해체적 의상디자인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의 분석과 새로운 경향 파악이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96 F/W-'98 S/S "Fashion Show-selected by trend".
- 경은주 (1995) 현대 복식에 적용된 해체주의적 표현방법.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곤 (1989) "탈모더니즘 시대의 미국문학". 서울대 출판부, 서울, p.20, pp.87-88.
- 김성복 (1994) 패션디자인과 해체주의. *한성대 논문집*, 18(1), p.487.
- 김원갑 (1991) 현대 건축 이론에 미친 아방가르드 이론과 과학 패러다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영 (1995)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1996)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연구-건축과 복식의 비교.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효 (1993)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서울, p.16.
- 김혜정 (1997) 해체주의 건축양식과 현대패션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3), p.99.
- 서강목 (1990) "포스트모더니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실천문학사, 서울, p.316.
- 손일호 (1993) 현대 복식의 해체적 성향. *포항선린전문대논문집*, 13(1), 115-116.
- 윤소정 (1996) 해체주의적 복식디자인에 관한 연구 -탈형식의 코디네이션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운 (1994) 조형주의 공간의 구성원리 및 디자인 특성과 조형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말희 (1996)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용교 (1991) 구성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 (1995) 현대 복식 디자인의 해체주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년 7월 8일 접수)